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피할 바위이시며 나의 방패시라”(시 18:2)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적의 위협으로 부터 보호하실때 시편기자의 은유적인 고백처럼 주는 우리의 피난처,또는 견고한 산성,요새라고 표현하십니다 우리 원수가 쳐들어 왔을때 자신이 노출되지 않고 견고하게 숨을수 있는곳 안전하게 피할수 있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곳은 우리에게 안전한 은신처가 되며 다시 일어설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는곳이 되기도 합니다 T국의 계엄령이 다시 연장되며 M시의 한인 여성사역자가 정당한 사유도 밝히지 않고 48시간이내 추방통보를 받은후 짐도 제대로 꾸리지못한채 강제출국 되었습니다 그는 몇달전 거주비자도 정상적으로 연장받은 상황이었기에 모든 사역자를 당황케 했습니다 시리아국경과 가까운 G시의 한 사역자가정은 자녀들에게 학생비자를 허가했음에도 자녀의 부모에게 거주비자를 불허함으로 인해서 지금 한국에 나가서 노동비자를 받기위한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T국과 미국사이엔 방문비자가 잠정적으로 중단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즘 사역자들이 모이면 즐겨 부르는 마틴루터가 곡을 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는 역시 주께서 우리를 안전한 요새에서 보호하실것이라는 강한 의지의 전투적 찬송가라고 볼수 있습니다 5백년전 면죄부를 사고파는 부패한 카톨릭사제들의 횡포를 홀로 외롭게 반박하던 자신에게 오직 한 영혼의 구원이 속죄함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어떻게 주장할수 있었을까요? 그의 마음속 한계에 부딪친 강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음에도 한 사람 마틴루터의 마음에서 울려나오는 작은 소리가 세상을 움직일수 있는 능력, 힘, 오직 예수만이 우리 죄를 사해주시는 구원자임을 선포하는것으로 가능 했을 겁니다

이처럼 아침안개 눈앞가리듯 거주비자가 불안정하고 마음껏 사역의 날개를 펼수없는 상황 에서도 시편기자의 고백처럼 주님은 우리의 요새시며 구원자이시며 우리가 신뢰할 능력의 주님이심을 영원히 찬양하는것과 지난 10월말 종교개혁 5백주년의 고백처럼 오직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구원을 이룬다는 당시 마틴루터의 작은 외침 하지만 세상을 움직였던 강한 능력의 힘을 믿기때문에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이심을 K시에서 계속해서 작은 외침을 두려움 속에서 담대히 전하며 주님의 지체인 이고니온공동체사역을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 9 월말 토요일오후 이스탄불에서 K 시의 한 대학교로 공부하러온 A(18)형제에게 복음을 전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A 는 친구인 C(19)도 복음을 듣기원한다고 해서 같은날오후에 C 형제를 함께 만나 그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솔직히 그동안 전도 경험을 통해 나이가 어린 A 형제에게 말씀을 읽고 전하면서 이 형제가 어떻게 반응할지 반신반의 했지만 다음날 주일모임에서 두 청년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 형제는 세례를 위한 일대일양육을 계속해서 받고 있지만 C 형제는 도중에 포기하고 친구를 따라오는 흔들리는 믿음의 상태입니다



C 형제(19)가 확고한 믿음으로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믿음이 자랄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U 형제(52)는 자신의 간절한 바램과 주의 은혜로 K 시를 떠나서 10 월에 이스탄불의 은혜성경학교 1 년과정에 입학했습니다 그를 보내며 저희 공동체의 모든 영혼이 함께 중보하며 축복 했습니다 U 형제가 다른 학생들보다 연장자이고 학습능력이 미치지 못하지만 특심이 있는 그가 성경학교의 과정을 잘 마치고 K 시로 돌아와 주님의 귀한 동역자가 되도록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A 형제와 N 자매가 귀한 딸 로자를 출산하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아내의 여성퀵트사역도 동역자가 안식년으로 없지만 수업일을 줄여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가운데 예수를 만나는 영혼이 나타날수 있도록 중보를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요새이시며 신뢰자가 되시는 예수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희망합니다 아직도 기독교는 개혁되어야 하며 마틴루터의 작은 외침처럼 하지만 세상을 바꿀수 있는 능력의 작은 외침이 이 K 시에서도 날마다 믿는자의 수가 더해지며 많은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족이지만 생각해보면 끝없는 독백같은 기도편지도 10년 가까이 두달마다 쓰고 있습니다 가끔 영화 **캐스트어웨이**가 떠오릅니다 무인도에서 고립된 주인공 **탐행크**가 외로움속에서 배구공에 눈코입을 그려놓고 대화하며 살았는데 그 배구공이름이 **월슨**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독백의 상대가 되어주신 월슨(동역자)님께 감사 드립니다

기도제목

1. C형제의 믿음이 굳건해 지며 A가 양육을 잘 마치고 세례받을수 있도록
2. U형제가 이스탄불의 성경학교과정을 졸업하고 주님의 동역자가 될수 있도록
3. A부부의 새로 태어난 선물 로자가 건강하게 자라서 주님의 자녀가 될수있기를
4. 자녀가 없는 U부부에게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도록

재정후원:GMP AMERICA(김기쁨/사랑지정)보내실곳:P.O.Box 555 Ellicott City MD 21041 U.S.A